

# KB vs 신한... '리딩뱅크 쟁탈전' KB가 웃나

KB '4분기 순익' 신한 앞지를 듯  
금융권 원톱 자리도 KB가 굳힐 듯  
신한, 非 은행사업 강화 등 통해  
올해 리딩뱅크 재탈환 발판 마련

'삼성-애플, 한국-일본(축구), 박성현-주타누간(골프)...'

스포츠나 기업 비즈니스 세계에서 실력이 막강한 '맞수'들의 대결은 언제나 흥미를 끈다. 여기에 양쪽의 스타일이 전혀 다른 경우라면 관전의 묘미는 '치명적인 유혹' 그 자체다.

지난해 은행권에서도 KB금융과 신한금융의 맞대결은 시장의 관심사였다. 지난해 '성적표'만 놓고 보면 윤종규 회장이 이끄는 KB금융의 승리가 유력하다. 하지만 조용병 회장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비(非)은행 사업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리딩뱅크 탈환의 발판을 마련해왔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4분기 KB금융 그룹 순이익이 신한금융그룹을 앞지를 전망이다. 금융권 '원톱' 자리도 KB금융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규 회장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KB의 비은행 부문을 한층 강화했다. '원(One) 신한' 아래 한발 늦게 M&A와 자산운용 강화 전략을 내세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아시아부동산신탁을 인수하며 2019년 왕좌 자리를 노리고 있다. 국내 증권사가 예상하는 KB금융지주

<은행 2018년 4분기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4Q17	3Q18	시장 Consensus	
			FnGuide	I/B/E/S
KB	554	954	602	608
신한	212	848	554	579
우리	134	598	256	226
하나	496	589	419	446
기업	256	520	309	311
DGB	31	80	72	83
BNK	-83	182	39	52
JB	14	73	36	37
은행 계	1,619	3,894	2,287	2,341
삼성카드	81	81	81	81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의 4분기 순이익은 6020억원이다. 국제금융조사 전문 기업인 톰슨IBES 기준으로 6080억원이다. 신한금융지주의 예상 순이익은 5540억원이다. IBES기준으로는 5790억원이다.

유안타증권 김민 연구원은 KB금융에 대해 "4분기 명퇴비용(1500억원)과 2019년 실적부담 완화를 위한 대손비용 증가

및 연말 계절적 요인에 따른 판관비 증가 등으로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34.5%(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 줄어든 6251억 원을 예상한다"면서 "다만 2017년 자회사 편입에 따른 큰 폭의 이익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8년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조5000억원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한지주도 4분기 명퇴비용(1000억원)과 연말 판관비선집행 등 계절적 비용 증가, 부실채권 상각규모 확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전입 증가 등으로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39.6%(전년 대비로는 142.1% 증가)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3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 한해도 양사의 경쟁은 치열할 전망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시무식에서 "올해 KB금융그룹을 압도적인 리딩금융그룹으로 만들겠다"며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1위 금융그룹으로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침묵의 킬러'로 불리는 조용병 회장도 조용하지만 공격적인 행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신년사에서 "2020 스마트 프로젝트(SMART Project)라는 일관된 전략 아래 올해도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도 조 회장의 행보를 주목한다.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부동산신탁이 신한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KB금융의 실적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글로벌 최대 사모펀드 가운데 하나인 KKR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신한지주 보유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분투자 가능성도 있다.

하나금융도 4190억원 규모의 순이익이 예상된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각각 2560억원, 3090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일 전망이다.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4분기 실적 부진은 경상 펀드멘털 악화라기 보다는 2019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면서 "시장의 우려와 달리 2019년 은행 EPS는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 NH농협은행 '2019 경영목표 달성회의' 서비스혁신 등 '신뢰받는 1등 은행' 다짐

NH농협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2019년 경영목표 달성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대훈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140여명이 참석해 올 한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통해 '신뢰받는 1등 은행'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고객과 농업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은행 도약 ▲직원 마케팅 역량 제고 ▲리스크관리 강화 등 각 부문별 추진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행장은 "올 한해는 농협은행이 매년 1조원 이상의 손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계속기업으로서 토대를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는 해"라며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2019년 경영목표 달성회의'에 참석해 당부의 말을 전달하고 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올 한해는 농협은행이 매년 1조원 이상의 손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계속기업으로서 토대를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는 해"라며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우리여행 적금" 들고 골드바 받아볼까

우리은행 창립 120주년 이벤트 '응답하라 1899' 내달 28일까지

우리은행은 2019년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음달 28일까지 '응답하라 1899'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1899는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의 설립년도를 의미한다.

'응답하라 1899' 이벤트는 세 가지 경품 행사로 구성된다.

첫번째는 이벤트 기간동안 '우리 120년 고객동행 예·적금', '스무살우리 적금', '우리 여행적금' 등을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골드바 120돈(1명), 건조기(30명), 공기청정기(30명), 식기세척기(30명), 스타벅스 상품권(1808명)의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두번째는 이벤트 기간동안 '우리 120년 고객동행 예·적금'을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왕복항공권 상당의 제주항공 리프레시 포인트 20만점



(120명), 스타벅스 기프트콘(1899명)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세번째는 이벤트 기간동안 우리카드 결제계좌를 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결제계좌 변경 시 스타벅스 상품권 1개가 제공되며, 우리카드 10만원 이상 이용 시 동일 상품권 1개가 추가 제공된다. 선착순 제공되며 상품권 한도(2만개) 소진 시 조기종료된다.

/안상미 기자

##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시청금융센터 개점

박원순 시장 1호통장 등 전달  
개방형 회의실·비즈카페 마련

신한은행은 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금융센터 개점식을 가졌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서울시금고의 안정적인 인수를 마쳤다. 이와 함께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모바일 앱(STAX)의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카카오 알림톡(카카오플러스 친구) 지방세 안내 도입하는 등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신규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편리한 시금고 업무의 중심이 될 서울시청 금융센터는 박시장의 1호 통장 및 복지카드 전달식 등 개점행사를 마친 후 영업을 시작했다.

서울시청금융센터는 서울시청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최대 15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다섯번째)과 위성호 신한은행장(여섯번째)이 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개점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유 개방형 회의실과 비즈카페를 마련했으며, 입구에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유용한 시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점식에서 박 시장은 "104년만의 시금고 은행 변경이었으나 원만하고 안정적인 인수인계를 마치고 시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정 동반자로서 신한은행의 역할을 기대하며, 시청금융센터 개점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하는 서울시의 여정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l@

## DGB금융, 대구은행장 최종후보 추천 내일로 연기

차기 자추위서 논의키로  
임추위 등 일정 변경 불가피

DGB금융지주 이사회가 대구은행장 최종후보 추천을 연기했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8일 최종 은행장 후보추천을 위한 자회사최고경영자추천 후보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최종 후보자 결정을 차기 자추위로 연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자추위는 최근 3년 이내 은행에서 퇴임하거나 현직 지주 및 은행 임원 약 20명을 대상으로 기존 자추위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대한 부합여부와 은행장으로서의 자질, 역량 등을 검증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장시간 논의했지만



최종 후보자에 대한 결정은 차기 자추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자에 대한 결정은 오는 11일 개최예정인 차기 자추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 지주의 은행장 후보추천이 마무리되면 대구은행 임추위에서 검증을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은행장이 선출된다.

한편 최종후보자 결정이 연기되면서 향후 일정에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계획대로 최종 후보자가 결정될 경우 오는 15일 은행 임추위에서 해당 후보자

에 대해 검증을 하게 된다. 2주 뒤에는 주주총회(29일쯤)를 통해 은행장을 정식으로 선임하게 된다.

하지만 최종후보 결정이 미뤄지면 은행 임추위(18일), 주주총회(2월1일)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차기 대구은행장 후계승계 개시결정을 내린 자추위는 이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새 행장을 선임해야 한다.

이사회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최종 은행장 후보자 추천에 대해 심사숙고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경우 은행 임추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